

익산 3일반산단 통근버스 운행한다

산단 환경개선 공모 선정 사업 승인·1억1800만원 국비 확보, 5월 중 사업 시행

익산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익산제3일반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승인받아 국비를 확보하여 1,8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5월 중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17년 산단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분야에 '익산제3일반산단 내 통근 버스 운행사업'을 응모한 결과 3월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삼기면 연동리와 낭산면 구평리에 위치한 익산제3일반산단지는 시내권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편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간 기업체에서는 자체 차량 운행 등으로 해결해 왔지만 기업비용 부담 가중 및 안전적 인력고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내버스(56-1번 버스, 2회/일)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에는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한 만큼 버스운행을 위한 나머지 절차들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올 5월중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

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기업의 고용안정 및 경영활동에 최대의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 산업 활력 기업도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제3일반산단지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국내북귀 기업 등 40여개기업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복지허브' 벤치마킹 줄이어

(수송동)

아산시 온양3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추진단 방문

군산시 수송동(동장 전종신)은 3일 아산시 온양3동(동장 김형관) 맞춤형복지팀 공무원과 추진단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송동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수송동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수송동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송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복지허브화 사업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산시 수송동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 SOS우체통 운영, 천사모(천원으로 사랑 만들어가는 모임), 아나비다 장터를 추진하며 주민 밀착형 복지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복지현장탐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후발 지역 멘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산시 온양3동 장희경 맞춤형복지팀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수송동의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우리에게 맞는 서비스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시,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보수 사업 추진

군산시는 이달부터 주거급여수급자가 가구 230세대에 대해 효과적인 주택 개량 및 실질적 주거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 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 초 군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3단계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했다.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동안 비용 350만원 이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동안 650만원 이하,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 동안 950만원 이하의 집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 대상인 230세대는 대보수 25세대, 중보수 28세대, 경보수 177세대(장애인의시설 99세대, 슬레이트 12세대 포함)이며, 11억5,500만원을 맞춤형 지원한다. /군산=김관근 기자

하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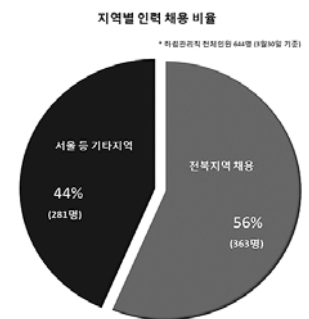
올해 1분기 총 122명 신규 채용... 생산직 대부분·관리직 56% 지역 인재

자연의 감동을 실천하는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2017년 1/4분기 총 122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하림에 따르면 올해 익산공장과 정읍공장 등 생산직 정규사원 108명을 채용한데 이어 정규 관리기술직 14명을 공개 채용해 모두 12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주)하림이 채용한 생산직 1,500명 대부분이 전주, 익산, 정읍시 등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일 뿐만 아니라 관리직 644명 가운데 56%인 363명이 전북지역 고교와 대학교를 졸업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1/4분기 입사한 신규 생산직 근로자는 도축 및 육가공 라인의 소요 인원과 퇴사자들의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채용한 결과이다.

또한 지난 1월 17일 모직공고를 낸 상반기 정기공채는 최종별 14명 채용에 598명이 몰려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하림은 또 관리 기술직 644명 가운데 전북지역 고교 및 대학교 졸업자가 363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지역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 고교 및 대학교 채용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전북대가 98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광대 69명 19%, 전주대 31명 9%, 우석대 26명 7%, 군산대 25명 7%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호원대가 22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고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해 111명 30%로 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하림은 올 하반기에도 생산직 및 관리기술직 정규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6년 일자리 창출 관련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주민 간담회 건의사업 등 신속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읍면동장 견문보고 및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각종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17일까지 10일간 예산부서, 사업부서, 읍면동장 합동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10개 분야 360개 사업 113억원에 대하여 1차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토대상 사업은 농로포장 117개 사업 42억원, 농배수로 97개 사업 33억원, 마을안길정비 69개 사업 25억원, 하천정비 12개 사업 5억원 등 총 10개 분야 360개 사업 113억원이다. 금후 면밀한 2차 검토를 거쳐 6월 추경에 정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은 일부 부적정 사업을 제외하고 1순위

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최우선으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선정하되, 구간이 길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가능재원 범위 내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비를 반영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불편 사항들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행정을 펼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검토해 예산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오는 7월 3일~7월 17일 익산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공모 선정

연간 10억 규모 10개 청년창업팀 사업화 종합지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서울·경기, 대전, 익산, 대구, 부산, 울산 지역에서 1곳씩 선정된 이 사업에서 호남권 디자인창업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원광대는 연간 10억 원 규모로 40개의 청년창업팀을 발굴해 창업 캠프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고,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창업팀(디자인+기술융합)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종합지원을 펼친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사업화 자금 지원, 보육을 통한 출시형 제품 창업

지원 등이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업체에 각각 5,0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선정된 40개 청년창업팀은 원광대에서 지원하는 창업·네트워크·작업공간을 비롯한 실습 기자재 및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 주도형 창업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원광대 창업지원단 백현기 단장은 "디자인 융·복합 플랫폼 구축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빠른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로교육 설명회·'꿈길' 운영 연수

(진로체험전산망)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3일 관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설명회 및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운영 연수를 개최했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3일 관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설명회 및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운영 연수를 개최했다.

그간 익산교육지원청 진로팀은 2017 슌리골 진로교육 추진계획을 설계하여 현장에 안내했으며 특히 진로체험전산망 '꿈길'에는 200여개의 체험처와 프로그램이 등재되어 있어서 학교에 체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비전으로 하는 익산진로교육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장공감의 진로기확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익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새하기를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해 진로체험처 정보지도 '꿈두레'에는 108개의 우리고장 진로체험처의 정보가 수록되고 홀랜드 성격유형을 적용한 체험처 분류와 게임시

말판 활용 등 흥미롭게 제작되어 현장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익산교육혁신특구 첫해로서 진로상담가치관 캠프, 학생동아리 대학 매칭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 개최

군산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는 2016년도 사업추진 결과와 2017년도 사업설명,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준수 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운영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